

# 민주, 분배에서 성장으로 가나

## 비전위 “보수·진보 틀 깨고 중도개혁 추구”

### 김효석 위원장 6개월 산고 ‘뉴 민주당 선언’ 초안 작성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 패배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토대로 '제3의 길'을 제시, 정권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내세웠던 '중산층과 서민의 벗'에서 더 나아가 특권층까지 포용하는 것은 물론 분배에 실패했던 무게 중심을 성장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어졌던 이념과 정체성에서 한단계 진화, 분배와 성장의 양 날개로 더욱 광범위한 지지를 얻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의 슬로건도 '모두를 위한 번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마련한 뉴 민주당 선언은 김효석(사신) 민주당 정책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뉴 민주당 비전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당 내외 인사들을 초빙,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결론이다.

우선 뉴 민주당 선언 초안을 보

면, 민주당은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어 새로운 중도개혁의 길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진보의 전통적 가치를 지켜나가되 시대정신과 국민통합의 길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비전으로는 '은정적이며 유능한 정당'과 '성장과 기회의 정당'을 제시했다.

냉혹하지만 유능한 산업화 세력(한나라당)과 온정적이지만 무능한 민주화 세력(민주당)의 대결 구도로는 향후 선거에서 패배한다는 자체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비전은 그동안 배제했던 일부 기득권층도 적극적으로 껴안고 분배와 성장을 함께 이루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풀린다.

특히, 이 같은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에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반복하고 있는 등 유능한 대안 정



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반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정치적 정체성도 전통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 놓고 질 좋은 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 모두를 위한 번영을 추구한다는 의지도 나타났다. 한마디로 중원을 차지하면서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현재의 '민주·평화·개혁'이란 3대 가치를 '더 많은 기

회·더 높은 정의·함께하는 공동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뉴 민주당 선언이 정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방점이 깊게 찍힌 성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당내에서는 뉴 민주당 선언 초안에 대해 이도저도 아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는 '꼭꼭 한나라당 노선'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뉴 민주당 선언을 둘러싸고 과거 열린우리당 초반 당의 정체성을 놓고 제기됐던 '남남구·백바지' 논란도 예상된다.

뉴 민주당 선언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김효석 민주당 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과거에 안주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진화하며 새로운 비전을 내세워야 한다"며 "이번 뉴 민주당 선언은 대선과 총선 패배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현재의 민주당 상황 등을 고려해 수많은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4·29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인 이미경 사무총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공천심사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박희태 불출마... 김덕룡 전략공천 고려 野 금주내 후보 공모 후 다음주 본격 심사

여야가 4·29 재보선 공천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16일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공모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18일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를 열어 전략공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박희태 대표가 이번 재보선 불출마 입장을 명확히 함에 따라 공천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안경률 사무총장은 "내 주 중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은 인천 부평을의 공천 문제. 안 총장은 이에 대해 "우리 당에 응모한 후보와 상대후보를 놓고 시뮬레이

선도 해보고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전략공천이 필요한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별위의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나 '부평을 출마 가능성이 이번 재보선 불출마 가능성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도 아닌데 내가 나설 입장이 아니지 않나'고 말해 여론을 남겼다.

한편, 울산 북구 전략공천설이 떠돌던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뒷산

황룡은 벌이 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벌어진다고 했는데 아마 오늘이 그 때인 것 같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도 이날 공천심사위원회 첫회의를 갖고 공천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금주 내 후보 공모를 거쳐 내주부터 본격적인 후보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공천'을 전면내세움으로써 선거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상당수 지역에서 참신한 외부인사나 거물급 인사를 영입, 전략공천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특히 승부처인 수도권의 인천 부평을의 경우 한나라당 공천상황을 지켜보며 전략공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천 시기를 가급적 뒤로 늦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동영 22일 귀국... 행보 본격화

### 출마 부정적 의견 많아... 공천 찬반 팽팽

4월 재선거에서 전주 덕진 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주당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오는 22일 오후 귀국, 재선거 행보를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정 전 장관의 출마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찬반 논쟁도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장관측 핵심인사는 16일 "정 전 장관이 이미 잡혀 있는 일부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미국 생활을 정리한 뒤 현지시간으로 21일 워싱턴을 출발, 22일 오후 4시30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의 귀국은 2007년 대선

과 지난해 18대 총선 연패 이후 지난해 7월 초 미국 듀크대로 '정치적 귀양'을 떠난 지 8개월만의 일이다.

정 전 장관은 귀국 후 출마 지역인 전주시로 가기 전에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 및 원로그룹 등과 만나 자신의 공천 문제에 대한 조율을 시도하는 한편 18대 총선 출마 지역이었던 동작구에 둘러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전주 출마에 대한 양해를 구할 예정이다.

또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안치된 경기도 용인 천주교 공원 묘원을 참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정 전 장관은 출마 선언 후 당내 논란이 격화되자 당 소속 의원들과 원로그룹 등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설득작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전 장관의 행보가 본격화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웅성거리고 있다.

재보선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해야 하지만 정 전 장관 출마에 대한 당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

이 훨씬 강하다. 이는 출마 선언 전부터 있었던 분위기다.

하지만, 덜컥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자 비난을 막기 위한 공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천에 대해서는 찬반이 맞서는 형국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 지도부로서는 분란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당내 분위기를 알고 있는 듯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귀국하면 당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정세균 대표 중심으로 당이 활력 있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간디니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분들의 비판과 반대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나라 4대강 정비 지원 시동

### 정종환 "4대강 살리기는 다목적 사업"

한나라당이 4대강 정비사업 지원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 내 4대강 정비사업 지원을 담당하는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지원특위'(위원장 정종환 최고위원)는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철저한 집행을 주문했다.

정 최고위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정부에서 비롯된 오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재순 최고위원은 "먼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하는 4대강 살리기와 국토가꾸기 사업의 업적을 기록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홍 등이) 많이 퇴적된 강, 마른 강, 더러운 강을 회복시키고 역사와 아우러지는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는 대단히 다목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5월 말 종합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며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4대강 살리기가 후손들에게 자랑할 만한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명박 장학재단 상반기 출범할 듯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약속한 '재산 사회'를 실현할 재단법인인 을 상반기에 출범할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이 모이고 있다.

16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산기부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재단법인 설립도 탄력을 받고 있다.

재단 명칭으로는 이 대통령의 모친 이름(채태원·1964년 작고)을 딴 '태원 장학재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48년의 전통! 오랜 경험이란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치른 보물이다! =

# 7.9급 공무원 전직렬

응적증문제풀이 4주 완성, 교재관감법검마, 철교보보간복소기, 한후 소방인력 8395명, 정형무제사원철약공정호진조지방술 총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인원 {국립직 7급 8395명, 7급 800여명, 공채 4급 4000여명, 공채}

시험일: 지방직 9급 5월23일, 7급 9월28일, 시골 7-9급 5월19일, 7급 9월11일 예정

개강 4월1일 (주·아·휴·모·공)

본 학원 강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형법학, 공법학, 세법, 회계학, 형법, 형소법, 교정학, 헌법, 정치학, 민사법, 소방법, 토목학, 상사, 기타

= 주간반 2개월, 야간반 3개월 완성 =

= 無等은 옛 명성 그대로 강의 弟! 합격 "最多"란 말을 듣고 있습니다!! =

부대시설: 교재상(200여권), 국사4년, 민사상(200여권), 지방자치법, 민법상(200여권), 헌법상(200여권), 교정학(200여권), 교정학(200여권), 교정학(200여권)

##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 222-4560

## 경찰 메가경찰학원

전국 최고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수시접수중 (종합 및 문제풀이)

※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1년과정	순경공채	특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li> <li>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li> <li>수강료 교재 25% D/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개월 완성 6회 반복 학습</li> <li>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함</li> <li>수강료 50% D/C 교재 25% D/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1차: 966명, 2차: 214명</li> <li>여·1차: 40명, 2차: 47명</li> <li>101단·1차: 120명, 2차: 12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의경 특채 240명</li> <li>경찰행정학과 특채 100명</li> <li>경찰 특공대 특채 36명</li> </ul>

※ 종합 1개월: 16만원 · 문제풀이 1개월: 13만원 · 단과: 9만원

www.gmega.co.kr ☎ 226-5050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 아이엘리시아

즉석 프리미엄 뷔페

들잔치, 세미나, 피로연, 화갑연 등 (100석룸, 50석×2룸 완비) 상품권 판매

아이엘리시아 고객 입맛은 요리는 우리를 항상 긴장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요리를 먹을 줄 아는 미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된 마음과 서비스로 대기업에 밀리지 않는 든든한 향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회원 혜택: 아이엘리시아 회원 가입 즉시 1,000포인트 자동 지급 & 10% 할인. 자세한 사항은 아이엘리시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류성호

코스	이용시간	총액	주말(공휴일)
런치뷔페	(평일) 12:00~15:30 (주말) 11:30~15:30	20,000원	28,000원
디너뷔페	(평일) 18:00~22:00 (주말) 17:30~22:00	26,000원	31,000원

※ 선기가격은 뷔페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배부 필요일 경우 유료

4세 미만 어린이 무료, 미취학 어린이(5~7세) 80% 할인, 취학어린이(초등학생) 40% 할인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062) 671-1199

10% 할인권